

‘민주전당’ 후보지 상무 시민공원 제시

광주유치위, 민주화기념사업회에 제안서 제출, 유치 활동 가속

입지 선정 국민토론회 공동 개최도 제의

지역 숙원이자 대통령 공약사업인 ‘한국민주주의전당 광주 유치’를 위해 유치위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공식 제안서를 제출하고 입지 선정을 위한 국민토론회 공동 개최를 제의하는 등 유치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안에 건립 후보지가 선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민주주의전당 광주유치추진위원회(위원장 김동원)는 최근 민주주의전당 사업 추진 주체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함세웅)에 광주 유치 제안서를 제출했다. 유치위는 제안서에서 “광주는 한국인들 뿐

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인정하는 20세기 민주화운동의 상징적 도시이며 광주와 시민들은 세계적인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로 만들기 위한 포부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갖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실현 차원에서 한국민주주의전당은 반드시 광주에 유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치위는 아울러 건립 후보지로 상무시민공원을 제시했다.

유치위는 이어 5일 서울시 중구 정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방문, 함세웅 이사장을 비롯 사업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미 제출된 제안을 이사회와 집행위원회 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해줄 것을 요청기로 했다.

유치위는 이 자리에서 입지 선정을 위한 국민토론회를 9월 하순께 서울에서 공동 개최하거나 공동 개최가 어려울 경우 광주에서 열리는 토론회에 사업회측이 참여해줄 것을 제의할 계획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17대 대선 권역별 정책공약집 ‘일류국가 희망공동체’를 통해 “한국민주주의전당을 광주에 유치, ‘민주·인권·평화’ 이미지를 확고히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당초 서울지역에 전당을 건립하는 것을 전제로 덕수초등학교와 경찰청 인권센터 등을 검토해왔으나 확보도와 정부 반대로 현재까지 부지를 확정하지 못하

고 있다.

광주와 유치위는 전당 유치를 위해 지난 2005년 전국 최초로 시민중심의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 지금까지 60여회 이상 중앙 부처와 사업회에 사업회측이 참여해줄 것을 제의할 것을 기울여왔다.

‘한국민주주의전당’은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상징하고 민주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시설로 1천400여원의 국비를 들여 11만5천㎡ 부지에 상설전시관, 사료관, 교육센터, 연구소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계획상 건립 후보지는 올해 안에 선정될 예정이며, 부지 확정 후 예산확보와 설계 등을 거쳐 오는 2010년 착공, 2012년에 개관한다는 목표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상록 전시관 개관 광주시 서구 농성동 옛 전남도지사 공관을 리모델링한 상록전시관이 3일 개관했다. 개관식에 참석한 시민들이 개관 기념 ‘골라주’전을 관람하고 있다. 이 전시는 내년 2월1일까지 계속된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종합계획 10년 넘게 방치...전담부서는 전시용

광주시 자전거 활성화 ‘헛구호’

광주시의 자전거 활성화 대책이 구호에 그치고 있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 자전거가 대체 교통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광주시는 자전거 활성화 전담부서를 만들어 놓았을 뿐 자전거 교통분담률·이용실태·효과 등 핵심적인 사항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겉돌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유재신(49·광산 2) 의원은 3일 “광주시는 ‘광주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비계획 보고서’를 작성해놓고 이후 한 차례도 보완하거나 수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지난 1995년 작성한 이 보고서는 광주시의 ▲자전거 보유현황 ▲수송 분담률 ▲이용 실태 및 목적 ▲이용자들의 직업별 특성 ▲자전거 도로 및 대중교통과 연계한 자전거 이용 증진방안 등도 담고 있다. 보고서는 또 지난 1995년 광주지역

자전거 보유율(0.32)·자전거 이용자 비율(6.5%)·1일 자전거 이용횟수(2.1회)에 통행인구 비율 등을 고려해 자전거 수송 분담률을 1.7%로 추계했고, 3단계 정비계획에 따라 수송분담률을 3.1%(2001년)→5.8%(2006년)→10.0%(2011년)까지 점차 늘리도록 했다.

유 의원은 특히 “10년 전 작성한 보고서에는 행정관청의 자전거 이용을 확대하고 도로나 지하철 계획, 주차장 건립계획 등을 수립할 때 자전거와 연계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자전거 보험 및 등록제 도입,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현재 상황에서 거론되는 자전거 활성화 방안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말했다.

결국 광주시가 이 계획대로 꾸준한 정책을 추진했다면 전국적인 자전거 선진지로 거듭날 수 있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주장이다.

광주시는 그러나 10년이 넘도록 이 계획을 보완하거나 수정하지 않는 등 방치했고 이렇다보니 변화된 상황에 맞는 실질적 자전거 활성화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

또 교통분담률·이용 실태·자전거 이용에 따른 교통 효과 등 기본적인 통계도 작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 7월 전담부서를 구성, ‘전시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나마 전담 공무원도 광주의 모든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과 직원 1명이 자전거 도로까지 겸하고 있는 수준이다.

유 의원은 “10년 전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정비 계획을 마련해놓고 여지껏 방치했던 광주시가 뒤늦게 전담 부서를 구성, 조례안과 정책을 만들겠다는 등 뒷북을 치고 있다”면서 “광주시의 의지 부족으로 자전거 선진 도시로서의 명성이 날아간 셈”이라고 말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

광주시 관급공사 대금 추석전 지급키로

광주시가 관급공사 대금을 추석전에 지급키로 하는 등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나선다.

시는 3일 발주부서 및 회계부서에 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을 원할 경우 법정기한에 관계없이 가능한 한 준공 검사 등을 앞당겨 추석 전에 대금을 집행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특히 지급된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하도급자 및 근로자들에게 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됐는지 여부를 3일 안에 확인하는 등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 대금지급 관련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대금회수, 행정조치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하도록 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광주도시공사 영락공원 성묘객 맞이 만전

광주시도시공사(사장 김영진)는 추석을 맞아 영락공원을 찾는 성묘객의 편의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옛세 동안 임시분향소를 설치하고 추석 전날인 13일 오후 3시 합동위령제를 지내기로 했다.

도시공사측은 또 1만1천여기의 묘역 벌초작업과 봉안당 대청소를 9일까지 완료하고 차량 이용 성묘객들을

위해 영락공원 입구에 520면의 임시 주차장을 마련, 상설주차장(520면)과 함께 가동키로 했다.

공사 관계자는 “예년에 비해 연휴가 짧아 추석 당일에는 혼잡이 예상되므로 전날이나 다음날 성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광주시민 75% “평화통일 희망”

청소년 46% “통일에 관심없어”

625명 의식 조사

광주시민 10명 중 7.5명은 ‘평화통일’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0~20대 청소년 절반 가량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3일 (사)아리랑 국제평화재단이 지난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 동안 광주시민 625명을 대상으로 ‘평화통일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75%인 469명이 ‘통일은 이뤄져야 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렸다. 156명(25%)은 ‘원치 않는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조사대상인 청소년 125명 중 46%인 58명은 ‘평화통일

에 관심이 없다’ ‘부정적이다’라고 답해 정부와 학교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10년간 남북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444명(71%)이 ‘긍정적’이라고 답했으며 이들 대부분은 ‘현 정부가 전 권력의 남북정책을 계승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리랑 국제평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전 권력의 대북 교류 정책 및 통일에 대한 평가와 현 정부의 새 정책에 대한 전망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종형 기자 galee@kwangju.co.kr

‘좋은보청기를 쓰십시오’
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동구평남동) (062) 227-9940 총장점 (금남공원앞) (062) 227-9970

부동산 매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프에프에프

1. 부동산 매매 전문회사 (주)에프에프에프 (062-227-9940)

2. 부동산 매매 전문회사 (주)에프에프에프 (062-227-9940)

3. 부동산 매매 전문회사 (주)에프에프에프 (062-227-9940)

4. 부동산 매매 전문회사 (주)에프에프에프 (062-227-9940)

5. 부동산 매매 전문회사 (주)에프에프에프 (062-227-9940)

6. 부동산 매매 전문회사 (주)에프에프에프 (062-227-9940)

7. 부동산 매매 전문회사 (주)에프에프에프 (062-227-9940)

8. 부동산 매매 전문회사 (주)에프에프에프 (062-227-9940)

9. 부동산 매매 전문회사 (주)에프에프에프 (062-227-9940)

10. 부동산 매매 전문회사 (주)에프에프에프 (062-227-9940)

기름값 절약만으로 심야전기 보일러를 빌려쓰는 제도!
자금조치 신청하십시오! 최우수 보일러 경쟁, 일본으로 수출하는 대상!

최신형 심야전기 보일러

1. 심야전기 요금 절약

2. 환경친화적 에너지

3. 안전성 확보

4. 내구성 우수

5. 설치비용 절감

6. 정부 지원금 신청 가능

심야전기 보일러

1. 심야전기 요금 절약

2. 환경친화적 에너지

3. 안전성 확보

4. 내구성 우수

5. 설치비용 절감

6. 정부 지원금 신청 가능

한국전력공사협약제출 연/중/무/후 무부상금 030-909-0088

평생 대상: 심야전기 사업부 주-이심일대기 상담전화 010-9469-9373